

과학·환경 독후감 쓰기

3학년

읽은 도서명 : 어서와 우주 화장실은 처음이지?

[제목] : 어서와 우주 화장실은 처음이지?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 갈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 책은 그 신비로운 우주에 한걸음 한걸음 더 가깝게 나아가도록 만들어준 아주 고마운 책이다. 지구보다 중력이 훨씬 적은 우주에서 생활하려면 화장실 사용법조차도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우주에서는 소변과 대변을 부르는 말도 많이 달랐다. 소변은 "액체폐기물", 대변은 "고체폐기물"이라 불러 줬다. 예전에는 우주에 화장실이 없어서 액체폐기물 주머니랑 고체폐기물 주머니를 몸에 테이프로 붙이고 다녀야만 했다. 내가 만약 우주인이라면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주인들이 밝명한 폐기물을 진공 흡입하는 장치가 생겼다. 참 다행인 것 같다. 액체 폐기물은 갈때기에 내보내 정화시킨 다음 깨끗한 식수로 만든다. 정말 깨끗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고체폐기물은 큰 용기에 보관해 두었다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때 불타서 없어 지도록 만든다.

문득 내가 지구에 간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았다. 그것은 물방울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는 일이었다. 책에서 우주인들이 물방울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는 것을 보고 흥미롭고 재밌어서 하고 싶었다. 지구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주에서는 "표면 장력" 덕분에 물방울을 정각각으로
집에서 먹는 일이 가능한 일이 된다. 지구에서 내가
하기 싫은 목욕이 우주에서는 정말 편하고 편하다,
지구에서는 비누칠을 하고 목도 헹군 다음 말리기 까지
해야 하지만 우주에서는 비누칠을 하고 목도 헹군
필요 없이 순간으로 비누칠을 하기만 하면 끝이다. 정말
간편하고 편하다. 우주 생활은 지구 생활보다 힘든 정도
있지만 간편하고 편한 점도 있다. 그렇지만 우주인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어려운 훈련 등을
이겨 내야지만 훌륭하고 멋진 우주인이 될 수 있다.
나도 미래 과학 발전의 큰 걸음을 내딛는 우주인
처럼 나도 미래를 위해 많은 훈련하고 유익한 일들을
하고 싶다!

과학·환경 독후감 쓰기

3학년 반 이름 :

읽은 도서명 : 도와줘요! 뼈다귀 아저씨 (키 크고 싶어요)

[제목] : 키 쑥쑥 마음 쑥쑥

나는 '도와줘요! 뼈다귀 아저씨'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정말 신기했다.

어른이 아기보다 뼈가 더 적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른이 나이도 많고 몸집도 크니까 뼈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어른이 뼈가 더 적은 이유는 아기때 여러조각이던 뼈가 붙기 때문이다.

나도 빨리 뼈가 자라서 키가 크고 싶다.

작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사촌이랑 롯데월드에서 있는데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기다렸다. 근데 안내문을 잘 보니 140cm 이상이 되어야 탈 수 있었다. "키가 140cm가 안 되서 탈 수 없어요" "안...돼" 145cm인 사촌은 놀이기구를 탔고, 140cm가 안 되는 나는 결국 못 탔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 아직도 섭섭하다. 이 책에는 나에게 필요한 키 크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었다.

첫번째 방법은 골고루 잘 먹기이다. 키 크는데 필요한 음식은 고기, 우유, 꿀, 대시마, 멸치 등이 있다. 키 크는데 방해하는 인스턴트 식품, 전분식, 설탕이 있다. 이것은 먹지 않을 것이다. 키 크는데 필요한 음식만

먹을 것이다. 이건 정말 자신있다.

두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안 받기다. 이것은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학원숙제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세번째 방법은 푹 자고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무엇보다 푹 자는 것이 중요하다. 잠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성장판에서 뼈 세포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홉시간 이상은 푹 자야 한다. 늦게 자는 나는 이것도 조금 어렵지만 노력하겠다.

하지만 진짜 큰다는 것은 키만 크는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자라는 것이다. 나도 키 뿐만 아니라 용기도 쑥쑥 자신감도 쑥쑥 자라고 싶다. 그런 내 모습을 생각하면 벌써 자랑스럽다.

과학·환경 독후감 쓰기

3학년

읽은 도서명 : 리네아의 식물일기

[제목] : 리네아의 식물일기를 읽은 뒤...

4월 5일은 식물을 심는 '식목일'이었다. 식물에 관심이 많은 나에게선인장 '알바'뿐인 나에게 우리집을 식물원 같이 만들어 놓을 방법을 알려주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 오렌지, 멜론, 토마토의 씨앗으로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알았다. 상자정원은 실내에서 쉽게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런 방법들은 집에서 내가 꼭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방법이었다. 우리 가족은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주로 먹어 이번 봄에 키워보고 싶다. 이책에는 물을 주는 것을 잊었을 때, 해충을 없애는 방법, 인공 조명, 모종을 잘 심는 방법 등이 나와있다. 나는 저번에 할머니가 주신 봉선화 씨앗과 해바라기 씨앗을 받았다. 나는 이번 주말에 봉선화와 해바라기 씨앗으로 길러 볼 것이다. 나는 봉선화를 예쁘게 키워서 손톱에 물을 들이고 싶다. 나는 해바라기가 키가 나보다 더 크면 좋겠다. 이책에는 리네아가 식물들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것의 결과가 담겨져있다. 나는 무엇이 더 빨리 자라는지 관찰과 실험을 할 것이다. 나는 모든 식물을 길러서 리네아처럼 식물일기를 쓸 것이다. 책 제목은 '지민의 식물일기'이다. 나는 내 책에 사진과 다른 식물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내가 식물을 길르는데 어려운 점과, 재미있는 점, 식물로 할 수 있는 것을 쓸 것이다. 식물을 잘 기르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손인 '초록 손'이 생긴다. 초록 손은 아마도 자연을

뜻해 초록 손이라는 것 같다. 나는 꼭 요 책에서 알게 된
모종과 씨앗으로 좋은 식물을 길러볼 것이다. 나도 언젠간
리네아와 리네아의 할아버지처럼 초록 손이 될 것이다. 식물아,
사랑해!

과학·환경 독후감 쓰기

3학년 반 이름 :

읽은 도서명 : 신기한 식물일기

[제목] : 잘 자라라, 초록빛 식물!

<신기한 식물일기>를 읽고

이 책의 표지를 본 순간 아주 밝은 노란 사람만한 레몬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레몬을 키우는 이야기 일까 하며 책을 넘겨보니 평소에 관심있던 식물을 키우는 방법이 재미있게 소개된 책이었습니다. 제 작년에 토마토를 키우려고 흙을 1cm 깊이로 파묻고 물만 주었더니 싹은 커녕 죽어있었는데, 그 이유도 알려줄 것 같았습니다.

식물을 키우고 관찰하는 주인공, 리네아는 식물이 병드는 이유중 하나는 해충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식물을 괴롭히는 해충과 어떻게 그것을 없애는지 알려줬습니다. 불그스름하고 기름가 도는 자루로 뒤덮힌 가루제충이 죽이기 어려운 이유는 배 아래 알을 낳고 있어 죽으면 알이 깨어나 또생기고 또생기기 때문일죠. 없애는 방법은 알을 없애고, 알코을을 솜에 묻혀 해충을 비비면 사라진다고 했어요. 우리 몸에 나쁜 담배가 구더기를 죽이거나 비눗물로 죽이는 방법도 설명했습니다. 살충제를 쓰지 않고 평범한 것들을 사용해 해충을 없앤다는게 너무 신기하고, 환경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뻐했어요.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일기 중에서 제 아이디어와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행을 가서 집을 비워야 할 때, 집에 있는 식물에게 물을 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천장에다 종이컵을 붙이고, 조금만 구멍을 뚫어 물이 조금씩 떨어지게 하면 식물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 습니다 하지만 30분 안에 물이 다 떨어져 4머지 시간 동

안은 물을 못받아 죽게 되었죠. 그런데 리네아는 비닐을 쓰면
끈을 물이 찬 그릇 안에 넣어 책으로 고정하면 다음 그 끈의 반대
부분을 화분 안에 넣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면 물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마음 놓고 여행
을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리네아는 햇빛덕분에 식물이 자라고, 식물에서는 식량과 산소가
 나온다고 했어요. 리네아의 할아버지께서는 산소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햇빛은 엽록소도 생기게 해주는데, 엽록소
 는 식물이 초록빛이 나게 하는 물질입니다. 이산화 탄소는 우리가 뿜어내는
 공기인데, 식물 안에서 산소로 변한다고 해요. 물에 녹아있는 질소
 양분도 햇빛 없이는 안 생긴다고 해요. 질소 양분은 식물에게 산소와 식량
 이 나오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나무는 콧구멍도 없는 데, 어떻게 이산
 화탄소를 비닐아 드리는지 엄청 궁금합니다.

리네아의 신기한 식물일기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도와준 책이었습
 니다. 제 꿈은 환경 공학자 입니다. 환경을 살리는 식물은 아주 필요한 존재
 입니다. 하지만 요즘 식물들이 너무 많이 잃어지고 있어요. 리네아가 알려준
 방법들, 특히 살충제를 줄이는 방법은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되었 습니다.
 참! 그토록 알고 싶어했던 소마토 키우기 실패 이유는 씨앗을 비닐봉지 안에
 보름쯤 넣어두어야 하고 재배할 때는 햇빛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그늘진 곳에 씨앗을 심었기 때문 입니다. 제 궁금증이 풀렸 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과 식물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 지구 를 살리고
 싶어요!